

# 전남 탄소중립포인트제 성과...탄소 2만677t 줄였다

### 지난해 6000가구 신규 가입...12만9184가구 참여도, 지난해 8만5249가구에 11억3천만원 인센티브

지난해 전남도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가 6000가구 증가하면서 탄소감축량이 2만677t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입자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반기별로 5% 이상 감축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더해 신규 가입자 확대와 기존 가입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5% 미만 감축한 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도입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000가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전남지역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현재 총 12만 9184가구다.

2022년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구는 상반기 6만

6459가구, 하반기 6만9815가구 총 13만6274가구로 2021년 11만 6664가구보다 16.8%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도 2021년 1만6655t에 비해 24% 증가한 2만677t을 감축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3만 그루가 연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다.

전남도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2022년 상·하반기 총 8만5249가구에 11억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따라 감축률 3% 이상 5% 미만 구간인 1만2368가구에 5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가정과 상업 등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 가입을 바라는 가구는 연중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환경부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새농민 회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내년 예산 확보” 광주시, 19일 여야 만난다

광주시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와 소통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19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

강 시장은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비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에는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지난 6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각종 산단 지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협조 요청 등을 받았다. 이후 다음 달 11일에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 협의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여야에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196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디지털아트관 조성 사업 등의 예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담은 광주 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통과,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올해 안에 처리가 시급한 법률 통과도 강조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도 신규 사업 국비 확보와 중점 법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일곡공원 공동주택 1004세대 사업 승인

2026년 5월까지 5726억 소요

광주시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인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광주 북구 삼각동 일대 63개

필지 5만8521㎡로 건축 면적 8510㎡, 연면적 12만1630㎡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 1004세대(분양 90%·임대 10%)가 들어선다.

사업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총사업비

는 5726억원이 소요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광주는 수량·마록·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지구가 대상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CCTV로 ‘사회적 약자’ 지킨다

### 전남자치경찰위, 보복범죄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 현행법 체포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사회적 약자 주거지와 그 주변에 내부영상망(CCTV)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중 범죄 노출 우려가 있거나 보복 범죄 등으로 2차 피해가 예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판단해 주거지나 그 주변에 내부영상망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촬영된 내부영상망의 영상은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비상벨이 작동되면 무인경비업체에서 출동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범

죄피해 우려자, 연쇄 성폭력 등 범죄발생 주변 주민, 실종이력이 있는 독거노인, 독거 지적 장애인, 범죄 피해 우려 독거 청소년 등이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 2022년에는 29가구를 설치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18가구에 설치했다.

지난 7월에는 주거지 무단 침입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내부영상망을 설치, 그 영상을 근거로 현행법을 불집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만형 위원장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영상망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남도음식문화대잔치 글로벌 축제로

### 도, 세부실행 계획 보고회...세계미식관·산업관 등 신설

전남도가 케이(K)-푸드의 원류로서 남도음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29회째인 남도음식문화대잔치를 글로벌 축제로 치르기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11개 유관 실·국장, 축제·요리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부 실행 계획과 사전 이벤트 개최 계획을 보고하고 행사 전반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올해 남도음식문화대잔치의 국제행사 확대 개최 원년을 맞아 남도음식 세계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청년을 비롯한 온 세대가 즐기는 젊은 축제로 이미지 변신을 꾀할 계획이다.

각종 체험, 시식 등 직접 맛보고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개최해 남도음식의 산업화, 브랜드화를 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제행사 격에 맞게 세계미식관, 미식산업관을 신설되고 기존 시군 및 주제관 등도 확대한다. 세계미식관은 20개 나라 이상 각국의 음식과 음식문화를 체험토록 꾸미고, 미식산업관은 남도장터유एस(US)를, 아미존 수출 상위품목, 푸드테크 등 남도음식의 산업화에 초점을 뒀 전시장 예정이다.

주한대사 초청, 외국인 요리경연대회, 외국인 인

플루언서 남도 미식투어 등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남도 전통주 하이볼 시음, 지역특화 빵 전시 및 시식, 어린이 대상 쿠키 클래스 등 청년 및 세대 공감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주제관과 시군 관에서는 남도음식의 특징을 보여줄 남도전통음식과 시군 대표음식을 전시하고, 증가음식과 섬음식 등 특별이벤트도 추진한다.

명인관에서는 남도음식명인의 음식을 체험하고 시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행사 기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1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남도 우수상품 품평·수출 상담회도 열어 경쟁력 있는 남도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축제 주무대를 수변관광쪽으로 옮겨 쾌적한 동선을 확보하고 남도의 풍성한 가을 정취를 느끼도록 포토존도 조성한다.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세계요리 판매장터와 청년 창업자를 위한 판매장터도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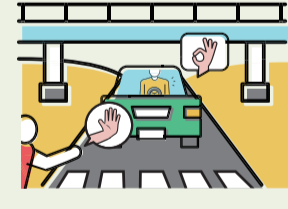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차·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뻗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